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년기 세대관계 잠재 유형 분류 및 영향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Identifying Typolog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Affecting Factors among the Old Retirees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of Public Pension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조 지 용*
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조 교 수 이 종 하**

Depar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Instructor Jo, Gee-yong

Depart. of Social Welfare, In-duk Univ.

Assistant Professor Lee, Jong-h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함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plore different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the later lives of old retirees. This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of public pension and the old age social security system so that the factors affect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can be analyzed, and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social adaptation in later life. The data used in this work are the Fourth basic survey data of the 2011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study subjects of this work were 2,435 retirees over age 65 who had children. In this study, latent cla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classify types of

* 주저자 : 조지용(georzi@ssu.ac.kr)

** 교신저자 : 이종하(jongha@induk.ac.k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levant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of those in the group were eligible for public pension, and the ones who were no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closely-living-together type, the separate-living-contact type, and the estrangement type. In the group not eligible for public pension, it was found that age, spouse, number of children, economic factors, and level of health satisfaction gave significant power to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the group eligible for public pension, it was found that age, income and net assets,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whether there was an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pouse, and number of children affected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Socio-demographic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healthy factors became significa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work suggested such necessities to lay the foundation for an elderly welfare system for social adaptation in later life, This includes the offering of programs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e use of family and local society resources, and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Key Words : 세대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공적연금(public pension)

I. 서론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평균퇴직 연령이 50대 중반으로 과거보다 퇴직연령이 일찍 도래하였으나, 직업적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실질적 은퇴 연령은 65세로서, 한국의 근로자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이후 은퇴까지 약 15년 동안의 소득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방하남 외, 2005). 따라서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일자리남성의 경우 평균 17.2세, 여성은 이보다 5~6세 더 긴 기간을 은퇴 이후 노년 기간 동안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통계청, 2011).

퇴직이 완전은퇴로 이어지기까지는 10여년이 걸리며,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기간은 노인과 그 가족에게 더 이상 ‘삶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기에 노년기는 휴식과 안정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백주희, 2012; Williamson, 2002). 중·고령기의 직업역할 이후 노년기로의 전환이 어려울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Szinnovacz & Davey, 2005).

은퇴 이후 노년기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감소, 은퇴에 대한 준비의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 은퇴 이후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신현구, 2007; Gall, Evans, & Howard, 1997). 노년기 만족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은퇴 이후 수입 부족을 뽑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연·정여진, 2006; 배문조·전귀연, 2004; 25. 최혜경 외, 2005; 한경혜, 2008).

또한 노년기에 만성질환을 가지는 것과 낮은 교육수준은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성은, 2013). 그리고 자신의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노후설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곽인숙, 홍성희).

퇴직자는 평균연령 65세 이전까지는 대부분 재취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으나,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은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노후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보장은 노년기 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에(백주희, 2012),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여부에 따라서 노인들은 노후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노년기 이후 고령 은퇴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체 활동들을 찾아 스스로가 사회에 통합되며,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 역할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Lemon, Bengston, & Peterson, 1972). 노년기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특성 파악과 노년기의 역할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적응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Aartsen et al., 2004; Doubova et al., 2010; Fiori et al., 2007; Litwin, 2001). 일반적으로 은퇴가 발생하는 노년기에는 중요한 타인들과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Kupperbusch et al., 2003, 정순돌, 2003). 특히 한국 사회의 노년층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직계가족으로 인식하며, 전통적 유교문화 가족관계에 기초한 세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윤현숙·유희정, 2006; 한혜경, 2002).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중 세대 관계는 노년기 생활적응의 매우 중요한 가족자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지원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 지원체계가 노후의 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기에, 세대관계를 단일한 범주차원으로서 이해하기 보

다는 세대관계의 다양성을 측정할 변인들을 분석하여 자녀와 이뤄지는 가족자원의 교환이 노년세대의 공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대체 혹은 보완하고 있는지 노년세대가 인식하는 세대관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가족복지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의 여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기대감과 태도가 상호 차별적일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공적연금 여부에 따른 가족중심 부양관에 기초한 노년기 세대간 관계를 탐색적 연구를 통해 유형화 하고, 세대관계 유형을 통해 살펴본 노후생활 적응 특성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공적연금을 통한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의 지속적인 자원의 교환 측면들이 어떻게 세대관계로 분류되는가? 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노년을 맞이하는 은퇴자 뿐만 아니라 예비은퇴자의 준비된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예비은퇴자들이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년기 은퇴자와 그 가족의 생활적응을 돕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규모 표본으로 확률적 방법을 통해 표집한 65세 이상 노년기 은퇴자의 생활태도와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연구문제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공적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년기 세대관계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공적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년기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세대관계

1) 세대관계 정의

세대관계는 부모가 자녀와의 접촉을 포함하여 이들과 상호간의 지원교환과 그에 따른 질적 차원으로 개념화된다(정기원, 2001). 사회적 관계망의 하위 차원으로서 세대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관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경숙, 2003; 유희정, 2011; Aartsen et al., 2004; Litwin, 2001). 먼저 구조적 특성은 지리적 접근성, 자녀의 수,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 빈도 등 연결의 다양성과 접근성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Dubova, 2010). 세대관계의 기능적 특성은 개인의 관계망이 어떤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서 관계의 내용을 의미한다(정순돌 외, 2010). 즉, 세대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지원교환이 도구적 차원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를 기능적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세대관계 유형을 살펴보기 위한 두 가지 특성들은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방법으로서 세대관계 구성원 수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과 상호교환적 요소들을 기술분석 방법으로 관계의 유형화를 탐색한다(Dubova, 2010). 하지만 이러한 관계 유형화 방법은 관측변인을 단편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세대관계가 갖는 추상적 개념을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세대관계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특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은 질적(평가적)차원의 요소이다. 구조적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질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은 구조적, 기능적 특성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고려

한 질적(평가적)차원의 요소들을 포함, 다변량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세대관계의 유형을 분석하여, 측정변인 이면에 잠재된 세대관계의 속성을 분석할 수 있다(Fiori et al., 2007). Fiori외(2007)는 Berlin Aging Study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노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기 위한 측정변인을 구조적, 기능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변량 분석방법으로 관계유형을 여섯 가지로 도출하여 세대간 상호작용을 지원교환의 양이나 빈도만으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측정변인의 질적 측면의 보안을 통해 세대관계에 주관적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관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세대관계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구조적 측면으로는 세대 간 동거여부, 접촉 빈도를, 기능적 측면으로 경제적 지원교환을, 질적 측면으로는 세대 간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인을 관측변인으로 활용하여 다변량 분석방법인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노년기 세대관계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노년기의 세대관계 유형

은퇴 이후 노년기는 직업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하는 시기로서 일상적인 사회접촉의 기회를 감소시켜 고령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역할퇴장’은 새로운 역할로 이어지지 않으면 노년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Blau, 1973). 은퇴 이후 노년기 과정은 생애과정 중 일부이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감은 노인의 건강 및 신체기능 뿐만 아니라(Antonucci, 2001; Ryff & Singer, 2001; 정영미·김주희, 2004), 스트레스나 우울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유양경, 2004; Sherman, 2003).

서구의 노년기 삶의 질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

계를 통한 성공적 노화나 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능적 의존이나 사회적 지지의 차원에서 부부나 세대관계를 포함한 친구나 친척, 종교행사 등 지역사회 참여, 친구와의 만남과 여가생활 참여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Fiori et al, 2007; Dubova et al., 2010; Bosse, 1993; Tillburg, 1998; Litwin & Dhiovitz-Ezra, 2006). Dubova 외(2010)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지지체계가 노년기 생활 적응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은퇴한 노인이 다양한 지역사회 체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기능적 의존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통한 지원체계가 중요하며, 도출된 5가지 관계 유형 중 가족이 없는 제한된 관계(non-family restricted network) 유형의 경우 타 관계 유형보다 경제적 지원의 비율과, 도구적 지원 비율이 다른 관계 유형보다 더 적었다. Ersson 외(1999)는 자녀와의 접촉이 노인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정서적, 신체적 적응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사회적 관계 변인 중 가족관계, 특히 체계간의 관계지원의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세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국내연구 중 조지용(2013)은 퇴직이전과 비교하여 퇴직이후의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가 지역사회나 여가활동 참여 등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퇴직이전 자녀관계 지향적 유형이 퇴직이후 경제적 지원관계와 정서적 유대관계 유형으로 세분화 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관계 유형이 차지하는 전체비율은 62.1%로서 중·고령자는 퇴직이후 직업역할 상실로 사회적 관계 영역 확대로 전환되기보다 자녀와의 관계로 집중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고령은퇴자의 은퇴 만족도를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역과의 인과성을 검증한 정순돌 외

(2010)는 자녀와 관련된 변수가 은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인들로는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자녀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단 연구를 통해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 변화를 살펴본 유희정(2011)은 노인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밀착형, 부모제공형, 부모수혜형, 별거친밀형, 소원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유형 특성은 4년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같은 관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는 부모제공형의 경우 가장 많이 다른 유형으로 변화되었지만, 부모수혜형은 다른 관계 유형과 비교하여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유형으로 분석되었고, 별거친밀형과 소원형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년기의 세대관계는 자녀에게 의존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그와는 상반되게 접촉과 주거면에서 자녀와의 연대가 미약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의 관계망은 직업적 관계로부터 자녀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인의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과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세대관계는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화된다(박경숙, 2003). 세대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을 줄이고 예상되는 노년기의 어려움인 경제적·건강상의 여건변화로 인한 생활사건의 완충적 작용을 하기에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사회수준의 세대관계에 따라 가족수준의 세대관계의 탐색을 통해 그 유형에 따른 노인과 자녀의 관계망에 각각 초점을 둔 실천적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노년기 세대관계 영향요인

한국사회는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치관적 요인, 사회구조적인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손병덕 외, 2008).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의 가족형태에도 나타나 3세대 확대가족의 급격한 감소와 독거가구의 증가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년세대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받아드리고, 다른 가족 성원에게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세대는 자녀의 역할을 수용하고 부모를 위한 자신의 적절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박태영, 2003). 하지만 노년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적절한 수용과 책임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년기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의 세대관계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이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연령이 따른 세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대관계가 별거에서 동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석, 2007; 유성호, 1996; 원영희, 1996). 하지만, 연령에 대한 부분은 건강상태, 자녀의 나이, 배우자 사별여부를 통제하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으며(김미영, 이성우, 2009), 유희정(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른 건강악화(IADL의 제한)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도 중요하지만,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가 세대의 관계변화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는가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노년세대의 성에 따라 세대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먼저 같은

노년층이라고 해도 여성노인의 자녀 동거 비율이 높았고(정경희, 2002), 자녀와의 상호적 지원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여성노인들이 더 많았다(김정석, 2001; 한경혜, 홍진국, 2000).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는 남성노인에게 많이 나타났다(유희정, 2011; Silverstein, Bengtson, 1997).

셋째, 노년세대의 거주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세대관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노년세대가 농촌에 살고 도시와 멀어질수록 자녀세대와 원거리 별거를 하였으며(정경희, 2002; 유승주, 이성우, 2007), 노년세대가 도시에 살수록 동거확률이 높고, 교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0).

넷째, 노년세대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학력의 노부모는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동거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는 연구(유성호, 1996),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가 적고,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연구(Shaw et al, 2007) 등이 있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음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형태의 관계를 맺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유희정, 2011).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안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노년세대가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풍부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노년세대의 배우자 유무도 자녀세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노년세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정경희, 2002; 원영희, 1996). 패널자료를 통해 종단분석을 한 김정석(2007)의 연구에서는 노년세대의 배우자 사별은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로 변환시키는 요인이라 설명하였다. 노년세대의 배우자 사별은 생존 노년세대의 성에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여성노인이 생존할 경우 자녀관계가 활발해지지만, 남성노인이 생존할

경우 그렇지 않았다(Han, Lee & Kim, 2008).

2) 경제적 요인

부모세대의 경제적 상황은 자녀세대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들은 경제상태가 좋고 나쁨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 경제상태가 나쁘면, 자녀가 부양하느라 동거하기도 하고, 경제상태가 좋으면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에 수혜를 받기위해 함께 살기도 한다. 구체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경숙(2000)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세대가 자녀와의 동거현상이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김미영과 이성우(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세대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확률이 높다고 하였고, 유희정(2011)은 경제적 여유가 없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소원하다고 보고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세대의 경제력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동거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을 떠나 부모자녀세대의 질적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세대의 경제력이 운택 할수록 세대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높으며, 빈곤할수록 세대관계가 단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경숙, 2003).

부모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정병은(2007)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지원교환이 이루어지는 호혜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호혜성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수혜관계인 지원교환의 관계가 되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김영범, 2008). 노년세대의 삶의 만족이 높다면, 자녀세대와 원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지만, 빈곤으로 인하여 자녀세대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부모세대가 스스로 자녀세대와 관계를 끊고 고립될 수 있다(Dowd, 1975).

공적연금의 수급여부가 자녀와의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석(2005)의 연구에서는 연금 및 자산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노후생활

비 마련을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석재은(2009)의 연구에서도 연금자원 유무를 가지고 노후부양관을 비교해 보았는데,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노후에 대한 가족책임 부양관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족책임의 노후부양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서 연금자원도 부족하고 가족책임의 노후부양관이 강하다는 것은 노년층 입장에서 세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3) 건강 요인

노년세대의 건강상황은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의 경향은 두가지 방향성을 갖는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동거가 증가한다는 것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녀가 부양을 하기 위해 동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 연구에서는 노인세대의 건강문제가 자녀들이 부양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연구들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호혜적인 지원교환의 수단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하고(정병은, 2007; 박경숙, 2000), 건강문제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은 자녀와의 접촉이 적어지고(정기원, 2001), 가족부양부담을 크게 만든다(Aartsen et al, 2004). 이처럼 노년세대의 건강은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세대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만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 국민노후보장패널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자료 중 2011년 제4차 기본조사 자료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국내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조사된 자료의 내용은 중·고령자의 생활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설문문항으로서,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은퇴, 노후생활, 소득, 자산 및 삶의 만족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차 기본조사 자료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4,105 가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6,682명의 개인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이중 1차년도부터 조사된 원표본은 6,343명이며, 4차 년도에 신규로 응답한 표본은 339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애과정동안 노동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존재하는 응답자이다. 공적연금의 여부에 따른 세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분하여 세대관계 측정변인을 분석하였는데, 공적연금 수급 집단은 654명, 공적연금 비수급 집단은 1,781명이다.¹⁾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세대관계 유형 측정변수

종속변수는 은퇴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녀

와 세대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를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 질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구조적 측면을 관측하기 위한 변수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정서적 지원교환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면접촉 수준과 비대면접촉 수준을 왕래빈도와 연락빈도를 1~9점(1점, 거의 없음 ~ 9점, 일주일에 5-7회)으로 측정한 값을 자녀수로 나눈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수를 이분화 하여 관측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세대관계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경제적 지원교환을 자녀세대에 대한 제공과 수급측면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당해년도 기준 일년 전 시점간 자녀에게 제공된 경제적 지원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수급특성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정기적 지원 여부로 구분하기 위하여 모든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 횟수를 자녀의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을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세대관계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는 ‘현재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로 측정된 변수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족도 수준을 이분화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측정변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2) 독립변수: 세대관계 유형 영향요인

측정변인을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요인, 건강요인으로 구분하여 세대관계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적 요인을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를 포함하였다.

경제요인 변수로는 소득, 순자산, 경제상태 만

1)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특수직 연금 수급자로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로 규정하였다.

(표 1) 세대관계 유형화를 위한 측정변인 정의

	측정 변인	측정 수준	조작적 정의
구조적 측면	동거여부	비동거=0, 동거=1	자녀세대와 동거 여부
	대면접촉수준	낮다=0, 높다=1	접촉수준 평균 횟수 기준 = 일주일 1~2회 이상
	비대면접촉수준	낮다=0, 높다=1	
기능적 측면	경제적 지원 제공	비제공=0, 제공=1	지난 1년간 경제적 지원 여부
	경제적 지원 수급	비정기적 지원=0, 정기적 지원=1	지난 1년간 경제적 지원 평균 횟수 기준 = 연 7회 이상
질적 측면	세대 관계 만족도	낮다=0, 높다=1	세대관계 만족도 평균 점수 기준 = 3점 이상

족도를 변인으로 포함했는데, 순자산은 응답자 개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여 환산하였으며, 소득과 순자산은 만원단위로 측정된 비율변수로서, 기술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될 설명변수로서 필요한 가정 중 분포의 정규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서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하여 회귀분석 모델에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경제상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응답자 개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요인은 일상생활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를 비롯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능력은 노년기의 연구대상자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을 총 7문항으로 측정한 변인으로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도움의 필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10문항으로, 앞서 일상생활능력 척도와 마찬가지로 3점 척도이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정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 상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건강상태에

대하여 만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은퇴 한 고령자의 세대관계 유형을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탐색하고, 관계유형을 설명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세대관계 유형 분석

종속변수인 세대관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은 일련의 관측변수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유형에 기초하여 잠재적 집단을 분석하는 탐색적 분석 방법이다. 잠재적 집단 분석은 잠재적 구조에 대한 추정 없이 관측된 변수로부터 직접 관찰 할 수 없는 유의미한 유형의 수를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발견하는데 적합하다(유상미 외, 2011). 분석은 M-plu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대관계의 잠재집단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모형의 적합성을 다양한 지수로 비교할 수 있어 최적의 잠재 모형을 탐색적

2) 소득은 응답자 개인의 1년간 소득으로서 은퇴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부동산관련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였다. 자산은 주택, 사업체, 기타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시가총액으로 환산 하였으며, 부채는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사채나 전세보증금, 기타부채 총액을 합산하였다.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Nylund et al., 2007).

적합도 지수로서 AIC(Ac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 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활용하는데, 경쟁 모델 중 지수의 값이 작은 모델 일수록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잠재 집단 분석 연구에 의하면,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지표로 가장 정확하다고 밝히고 있는 지수로서 SSA BIC와 함께, BLRT (Bootstrapped-parametric Likelihood Ratio Test)검증은 k-1개의 잠재집단과 비교하여 k개의 잠재집단 모형에 대한 log likelihood 분포의 차이를 바탕으로 적합도의 향상 정도에 대한 유의확률을 제공하는 기법으로, 유의수준보다 p-value가 더 낮으면 이는 더 적합한 잠재집단 모델로서 판단된다(Nylund et al., 2007).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할 잠재 집단의 분류정확도(classification quality)를 보여주는 Entropy 지수는 0.8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이 특정 집단으로 분류가 잘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Vermut & Magidson, 2003). 분류된 잠재 집단은 전체 표본대비 해당 비율이 최소한 1% 이상 되어야 집단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Lanza et al., 2007; Nooner et al., 2010), 분류된 집단들에 대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적의 집단 모형이 결정되면 각 집단이 차지하는 잠재적 집단 확률을 구하고, 각 잠재 집단이 측정 변수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측정 항목 조건확률(conditional probabilities)을 구했다. 집단에 따른 분포를 참고하여 잠재집단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대관계 유형을 명명하였다.

2) 세대관계 유형 영향요인 분석

노년기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서 독립변인들

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공격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도출된 세대관계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을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공격 연금 수급 여부 차이에 대한 설명요인을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은퇴이후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연금 비수급자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67.9%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금 수급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63.0%로 여성보다 약 2배 많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층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금 비수급 집단의 경우 7-80대의 응답비율 전체 79.1%이었으며, 연금 수급 집단의 경우 60대가 34.6%, 70대가 54.6%로 나타나 국민연금 가입의 전국민 확대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연금 수급 집단의 연령대의 분포가 비수급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60대에 집중되어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 연금 비수급 집단은 57.3%로 연금 수급 집단(67.6%)보다 약 10% 낮았으며, 자녀수는 연금 비수급 집단이 5명 이상(34.6%), 연금 수급 집단은 3명(34.4%)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도 연금 비수급 집단이 3.6명, 연금 수급 집단이 3.3명으로 연금 비수급 집단의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연금 비수급 집단 (N=1,781)		연금 수급 집단 (N=65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72	32.1	412	63.0
	여성	1209	67.9	242	37.0
연령	60대	331	18.6	226	34.6
	70대	970	54.5	357	54.6
	80대	439	24.6	65	9.9
	90대 이상	41	2.3	6	.9
	평균 (표준편차)	75.7 (6.4)		72.3 (5.3)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022	57.3	442	67.6
	이혼	34	1.9	13	2.0
	사별	725	40.8	199	30.4
자녀수	1명	137	7.7	50	7.6
	2명	215	12.1	116	17.7
	3명	429	24.1	225	34.4
	4명	386	21.7	148	22.6
	5명 이상	614	34.5	115	17.6
	평균 (표준편차)	3.6 (1.3)		3.3 (1.3)	

2) 경제 및 건강요인 특성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경제적 특성을 소득과, 자산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연소득의 경우 연금 수급 집단의 경우 10,406천원이며, 연금 비수급 집단은 3,526천원으로 연금 수급 집단이 비수급 집단보다 약 3배정도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환산한 평균 금액 역시 연금 수급 집단이 141,957천원으로 비수급 집단보다 약 70,000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상태에 대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한지를 살펴본 결과, 연금 수급 집단이 2.92점, 연금 비수급 집단이 2.67점으로 연금 수급집단의 경제 만족수준이 0.25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정기적인 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

는 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고령자 보다 가처분 소득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건강 요인 특성을 살펴보면(<표 4>참조), 일상생활 능력의 제한 및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제한의 수준이 연금 비수급 집단이 각각 7.78점, 12.28점으로 연금 수급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강상태 만족도는 연금 수급집단이 2.84점, 연금 비수급 집단이 2.65점으로 나타나 경제상태 만족도와 함께 연금 수급 집단의 건강 상태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경제 요인 특성

단위 : 천원, 점

구분	연금 비수급 집단			연금 수급 집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	3,526.78 (5334.79)	0	61,000	10,406.74 (11,774.63)	0	84,090
순자산	69,680.29 (199,785.64)	-730,000	3,915,000	141,957.41 (302239.33)	-600,000	3,182,000
경제상태 만족수준	2.67 (0.89)	1	5	2.92 (0.94)	1	5

〈표 4〉 연구대상자의 건강 요인 특성

단위: 점

구분	연금 비수급 집단			연금 수급 집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ADL 수준	7.78 (2.52)	5	21	7.47 (1.95)	7	21
IADL 수준	12.28 (4.85)	10	30	11.41 (3.64)	10	30
건강상태 만족도	2.65 (0.92)	1	5	2.84 (0.92)	1	5

2. 세대관계 유형 특성

1) 세대관계 측정 변인 특성

공적연금 여부에 따른 세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측정변인의 특성은 다음 <표 5>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동거여부 측정변인에 따라 두 집단은 각각 53.6%, 53.7%의 자녀세대와 동거비율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교환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문을 통한 대면접촉과 전화나 통신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수준이 높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금 수급 집단이 각각 58.2%, 51.8% 이었으며, 연금 비수급 집단은 57.9%, 49.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교환이 연금 수급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관계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 변인으로 경제적 지원교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연금 비수급 집단은 24.8%이었으며, 연금 수급 집단은 20.0%로 나타나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응답비율은 두 집단 모두 극히 드물어 각각 0.5%, 0.8%로 조사되었다.

세대관계의 질적 측면을 판단할 수 있는 세대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변인의 분석 결과, 자녀와의 세대관계 만족수준이 높다고 측정된 연금 비수급 집단은 46.9%, 연금 수급집단의 경우 58.4%로 나타나, 연금 수급집단이 세대관계에 대한 질을 연금 비수급 집단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세대관계유형화를 위한 측정 변인 특성

구분		연금비수급 집단 (N=1,781)		연금수급 집단 (N=65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동거여부	동거	954	53.6	351	53.7
	비동거	827	46.4	303	46.3
대면접촉 수준	낮음	749	42.1	262	41.8
	높음	1032	57.9	365	58.2
비대면접촉 수준	낮음	900	50.5	302	48.2
	높음	881	49.5	325	51.8
경제적 지원 수급	비정기적	1340	75.2	523	80.0
	정기적	441	24.8	131	20.0
경제적 지원 제공	없음	1772	99.5	649	99.2
	있음	9	.5	5	.8
세대관계 만족도	낮음	946	53.1	271	41.4
	높음	835	46.9	382	58.4

2) 세대관계 유형 분류 분석

은퇴 이후 고령계층의 세대관계 유형을 구조적, 기능적, 질적 요인에 따른 6가지의 측정변인을 응답 유형에 기초하여 세대관계 잠재 집단 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 집단의 세대관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잠재적 집단에 대한 가정 없이 단일 집단 모델(잠재집단 수 1개)에서 시작하여 집단의 수를 순차적으로 늘려 해당집단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1) 공적 연금 비수급 집단 세대관계 유형 분류

공적 연금 비수급 집단의 고령자의 세대관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단일 집단 모델에서 출발하여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하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을 추정하였다. 제시된 <표 6>을 살펴보면, AIC는 3집단까지 감소하였으며, BIC와 SSA BIC의 경우는 2집단까지 감소하였다가, 3집단 모델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집단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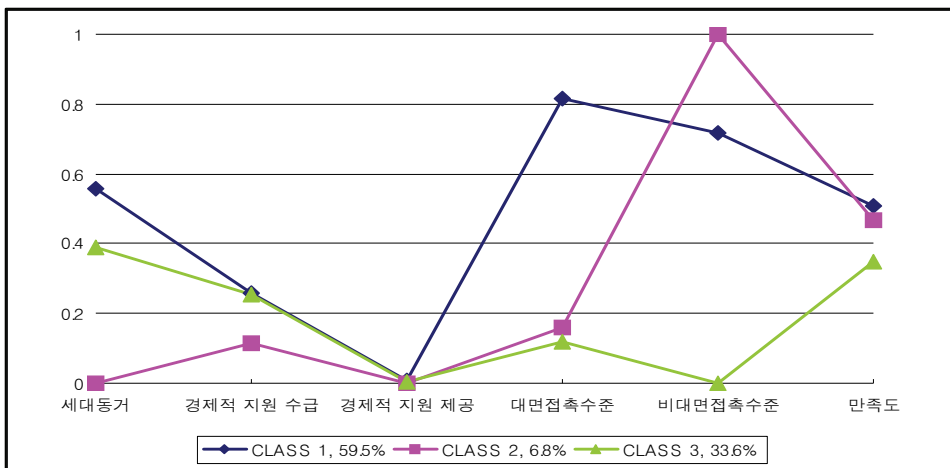
Entropy의 경우 3집단 모델이 0.693으로 4집단 모델과 비교하여 가장 0.8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BLRT의 결과가 .05 수준에서 3집단 모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해석가능성, 간결성과 비교 가능한 통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발견된 3집단 모형의 각 집단의 크기는 class1이 59.5%(N=1,060), class2가 6.8%(N=122), class3가 33.6%(N=599)로 분류되었다. <그림 1>은 3집단 모형에 대한 조건 항목 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그래프이다. x축은 6개의 측정변인들을 나타내고 y축은 각 항목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항목 확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전체 연금 비수급자 중 59.5%를 나타내는 집단 1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세대관계의 특성으로, 자녀와 동거를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서적 지원교환으로 대면접촉이 다른 집

〈표 6〉 연금 비수급자의 세대관계 잠재 집단 모형 적합지수

집단 수	Log Likelihood	AIC	BIC	SSA BIC	Entropy	BLRT(p)
1집단	-5960.69	11966.30	11966.30	11947.24	-	-
2집단	-5862.52	11751.05	11822.35	11781.05	0.59	-5960.69(.00)
3집단	-5853.17	11746.35	11856.05	11792.51	0.69	-5862.52(.00)
4집단	-5846.41	11746.83	11894.92	11809.14	0.56	-5853.17(.25)



〈그림 1〉 연금 비수급자의 세대관계 잠재 집단 유형 조건 항목 확률 그래프

단보다 높은 확률을 보이며, 이에 따른 자녀와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1을 동거밀착형 세대관계로 명명하였다.

응답자 비율이 6.8%로 타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분포를 나타낸 집단2는 자녀와 동거를 하는 응답자가 거의 없으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수급이 비교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면 접촉 수준은 낮지만 주로 전화 등과 같은 비대면정서적 교환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항목확률을 바탕으로 집단2를 별거연락형 세대관계로 명명하였다. 비록 전체응답자중 집단2에 포함된 대상자의 비율이 작지만,

집단 1과 비교하면 세대동거확률이 0.0으로 세대간 동거하지 않고, 세대간 정서적 지원 특성 중 대면접촉수준과 대조적으로 비대면 접촉수준확률이 1.0이므로 집단의 세대관계는 상호 배타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2의 세대관계의 특성은 집단3과도 비교하여도 정서적 지원 중 비대면접촉수준의 확률이 각각 1.0과 0.0으로 두 집단간 자녀세대와 정서적 지원교환의 성향을 차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집단2의 경우 분류된 잠재 집단이 전체 표본대비 해당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으로 집단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집단크기의 조건을 갖추었고 (Lanza et al., 2007; Nooner et al., 2010), 항목

〈표 7〉 연금 수급자의 세대관계 잠재 집단 모형 적합지수

집단 수	Log Likelihood	AIC	BIC	SSA BIC	Entropy	BLRT(p)
1집단	-2111.87	4235.75	4262.65	4243.60	-	-
2집단	-2088.70	4203.41	4261.69	4220.41	0.79	-2111.88(.00)
3집단	-2080.27	4200.54	4290.20	4226.70	0.81	-2088.71(.03)
4집단	-2076.32	4206.65	4327.69	4241.97	0.77	-2080.27(.60)

조건 확률을 통해 세대관계의 중요한 교환자원인 정서적 교환의 특성이 타 집단과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분류된 집단을 통해 세대관계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3의 경우 66.6%로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차지하였는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확률이 타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녀와 대면접촉 수준 및 비대면 접촉 수준과 같은 정서적 지원 교환 측정 변인의 확률값이 낮고, 세대관계 만족도 역시 두 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확률 그래프의 조건확률값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3은 소원형 세대관계로 명명하였다.

(2) 공적 연금 수급 집단 세대관계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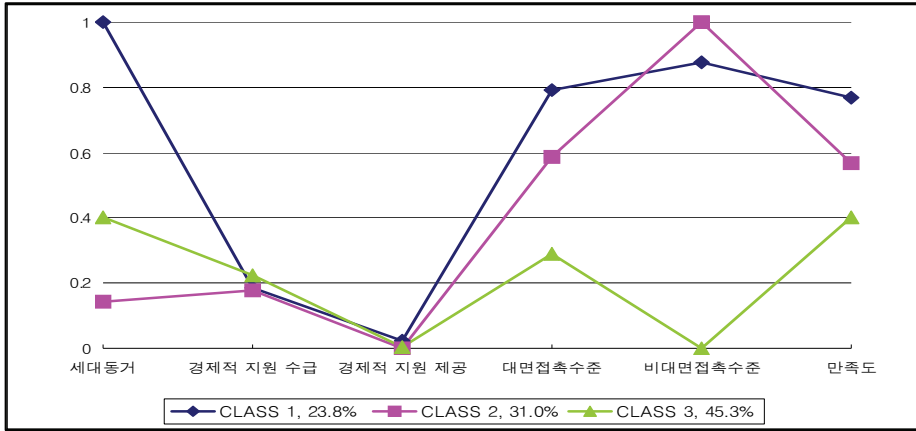
공적연금을 은퇴 이후 수급 받고 있는 집단의 세대관계 유형을 측정변인을 통해 집단 모델을 탐색한 결과, 각 집단의 모형 적합도 지수들은 다음 <표 7>과 같다. 1집단 모델에서 시작하여 집단의 수를 추가하여 잠재집단을 탐색한 결과, 2집단 모델까지는 BIC와 SSA BIC 모두 감소하였지만, 3집단 모델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반영하고 있는 Entropy 지수의 경우 3집단 모델에서 0.8에 가장 근접하고 있으며, 잠재집단 모델에 대한 log likely hood 분포의 차이를 바탕으로 적합도의 향상정도에 대한 유의 확률 역시 유의수준 보다 낮기에 앞서 살펴본 비수급 집단과 마찬가지로 3집단 모델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분류된 집단들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과 맥락을 같이하는지 모형의 유용성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유상미 외, 2011; Nylund et al., 2007). 적합도 지수를 통한 비교를 통해 모형의 유용성을 고려해야 할 집단은 2집단 모형과 3집단 모형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 모델에 대한 비교결과, 2집단 모델의 경우 각 집단의 그래프가 서열화 경향성, 즉 측정 변인에 따라 각 집단의 조건 확률 유사한 분포의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잠재집단들이 타 집단들과 상대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3집단 모형의 경우 경제적 지원 교환을 측정항목의 조건확률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 변인에서 각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를 통해서 잠재집단의 확률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비율 중 23.8%(N=156)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 1의 경우 자녀세대와 동거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교환인 대면접촉수준과 비대면접촉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다른 잠재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자녀와의 만족수준 역시 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확률을 보였다. 집단1의 경우 앞서 살펴본 연금 비수급자의 집단 1과 유사한 속성을 조건항목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에, 동거밀착형 세대관계로 명명하였다.

다음 집단 2와 집단3 역시 연금 비수급자 집



〈그림 2〉 연금 수급자의 세대관계 잠재 집단 유형 조건 항목 확률 그래프

단과 비교해 볼 때, 해당 항목에 포함될 확률이 유사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2는 세대간 비동거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고, 연금 비수급자 집단의 확률 분포와 비교하여 대면접촉을 통한 정서적 지원교환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비대면접촉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기 때문에 연금 비수급자의 집단2와 동일한 별거연락형 세대관계로 명하였으며, 연금 수급자 전체의 31.0%(N=202)로 나타났다.

집단 3은 전체 45.3%(N=296)의 연금 수급집단이 속한 가장 큰 집단으로 세대관계 조건항목을 지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항목 확률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동거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낮으며, 정서적 지원교환의 측정변인인 대면접촉과 비대면접촉수준이 낮은 확률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대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항목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집단 확률에 속해 있으므로, 연금 비수급자의 집단3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 소원형 세대관계로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공적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세대관계 유형을 구분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세 개의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다. 공적 연금 수급여부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계 유형이 동거밀착형 세대관계, 별거연락형 세대관계, 소원형 세대관계 유형이 발견되었다. 연금 수급여부에 따라서 세대관계 유형은 유사하였지만, 집단의 크기와 각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조건확률이 이질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금 비수급자의 중 동거밀착형 집단이 59.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원형 집단이 가장 많아 46.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에 따른 세대관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금 비수급자와 비교하여 연금 수급자의 세대관계는 구조적, 기능적, 질적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다. 두 집단의 세대관계 확률분포를 살펴볼 때, 연금 수급자의 각 세대관계 유형이 연금 비수급자의 경향성과 유사하였지만, 조건항목확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분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정서적 지원교환 수준, 세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연금 비수급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수급의 확률 분포는 비수급자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수급 여부에 따른 두 대상 집단 모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에 속할 확

〈표 8〉 연금 비수급자 세대관계 영향요인

요인	구분 변수	동거밀착형			별거연락형			소원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인구 사회	성별 (0=여성)	0.13	0.12	1.13	0.07	0.23	1.07	-0.18	0.13	0.84
	연령	-0.02*	0.01	0.98	0.02	0.02	1.02	0.01	0.01	1.01
	배우자유무 (0=배우자 유)	-0.32**	0.12	0.73	-0.51*	0.23	0.60	0.51***	0.12	1.66
경제 ³⁾	자녀수	-0.12***	0.03	0.89	0.19***	0.05	1.20	0.07*	0.03	1.07
	소득	0.26***	0.08	1.29	-0.50**	0.19	0.61	-0.21**	0.08	0.81
	순자산	0.29***	0.10	1.34	-0.25	0.22	0.78	-0.28**	0.11	0.76
	경제상태만족도	0.23***	0.07	1.25	0.06	0.12	1.07	-0.26***	0.07	0.77
건강	ADL지수	0.02	0.04	1.02	0.09	0.06	1.10	-0.06	0.04	0.95
	IADL지수	-0.01	0.02	0.99	-0.05	0.04	0.95	0.02	0.02	1.02
	건강상태만족도	0.02	0.07	1.02	-0.21 [†]	0.12	0.81	0.04	0.07	1.04
	Constant	1.66	0.69	5.27	-3.98	1.26	0.02	-1.49	0.71	0.22
	χ^2	109.1***			44.5***			91.3***		
	-2log likelihood	2308.0			916.2			2189.7		
	Nagelkerke R^2	.080			.059			.069		
	Classification Correct	61.9 %			92.4 %			67.2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대관계 영향요인 분석

공적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은퇴 고령자의 세대관계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개별 세대관계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하여 설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발견된 세대관계 잠재적 집단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 공적 연금 비수급 집단 세대관계 영향요인

잠재 집단 분석을 통해 분석된 3개의 세대관계 유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학적 요인, 경제요인, 건강요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금 비수급자의 세대관계 중 동거밀착형의 경우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이 통제 되었을 때, 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수가 경제 변인은 모든 변인이 동거밀착형 세대관계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고, 연령과 자녀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유형에 포함될 승산비(odds ratio)가 각각 27%, 2%,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요인인 소득과 순자산 및 경제상태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되면 각각 관계에 속할 승산이 1.29배, 1.34배, 1.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노년기에 배우자가 있으며,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적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인식이 긍정적 일수록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정서적 지원교환 수준이 높은 관계

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별거연락형 세대관계에는 배우자, 자녀수를 포함하여 경제 변인으로 소득과 건강 변인으로 건강상태 만족도가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과 건강상태 만족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관계 유형에 속할 승산은 각각 40%, 39%,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한 단위 증가할수록 집단에 포함될 승산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우자가 존재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 만족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떨어져 지내며 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정서적 교환을 이루고 있는 노년계층의 세대관계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소원형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배우자유무, 자녀수와 더불어 모든 경제변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관계 유형에 포함될 승산은 1.66, 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요인의 경우 소득과 순자산 및 경제상태 만족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소원형 관계로 속할 승산은 각 19%, 24%,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자녀와 거리를 두는 세대관계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노년기 특성은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녀수가 많으며, 경제적 요인들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소원형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을 제외한 동거밀착형 세대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서로 반대의 요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세대관계 유형이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적 연금 수급 집단 세대관계 영향요인

세대관계 유형 분류를 통해 탐색된 공적 연금 수급자의 세대관계 유형은 앞서 살펴본 연금 비수급 집단과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밀착형, 별거연락형, 소원형 관계 유형으로 3개의 세대관계 집단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관계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동거친밀형 세대관계의 경우 연령, 소득, 순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에 따른 설명력을 살펴보면, 연령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승산비가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요인중 소득과 순자산의 증가는 관계 유형에 포함될 승산비가 각 1.3배, 1.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 수급자 집단은 비수급자 집단과 달리 동거밀착형 관계에 배우자 유무나 자녀수 및 경제상태 만족도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정서적 지원교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낮고 소득이나 자산의 유지를 통한 가처분 소득이 확보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한 결과로서, 이 시기는 노년기간 중 은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이 결과를 통하여 신체적·경제적 의존 욕구가 낮은 노년계층 일수록 동거밀착형 세대관계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거연락형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 요인만이 분석되었다. 일상생활능력제한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제한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관계 유형에 속할 확률이 1.18배, 1.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비수급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가 설명변인

3) 경제변인 중 가구자산, 가구부채, 가구소득은 원자료상 중앙집중경향도를 나타내는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변인의 왜도 역시 0이상 값으로 나타나 원자료 자체를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이상점(out-lier)에 의한 종속변수에 대한 과대영향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변수를 z값으로 표준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투입하였다.

〈표 9〉 연금 수급자 세대관계 영향요인

요인	구분 변수	동거친밀착형			별거연락형			소원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인구 사회	성별 (0=여성)	-0.35	0.27	0.71	-0.07	0.25	0.93	0.26	0.22	1.29
	연령	-0.04*	0.02	0.96	-0.03	0.02	0.97	0.05***	0.02	1.05
	배우자유무 (0=배우자 유)	-0.31	0.28	0.74	-0.05	0.25	0.95	0.26	0.23	1.30
	자녀수	0.01	0.08	1.01	-0.10	0.07	0.91	-0.08	0.06	0.92
경제	소득	0.26**	0.11	1.30	0.05	0.11	1.05	-0.27**	0.11	0.76
	순자산	0.19 ⁺	0.11	1.21	-0.14	0.13	0.87	-0.11	0.11	0.89
	경제상태만족도	-0.02	0.13	0.98	0.02	0.12	1.02	0.01	0.11	1.01
건강	ADL지수	-0.12	0.10	0.88	0.17 ⁺	0.09	1.18	-0.04	0.08	0.96
	IADL지수	0.04	0.05	1.05	0.10*	0.05	1.10*	0.04	0.04	1.04
	건강상태만족도	-0.02	0.13	0.98	-0.20	0.13	0.82	0.18	0.12	1.19
Constant		3.06	1.55	21.22	1.28	1.43	3.59	-4.74	1.28	0.01
χ^2		41.9***			12.866*			37.5***		
-2log likelihood		691.7			741.6			865.8		
Nagelkerke R^2		.09			.03			.08		
Classification Correct		75.2 %			73.3 %			60.4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으나, 연금 수급집단은 연금 수급을 통해 비수급 집단의 설명변인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는 전통적 부모 부양관 입장에서 자녀와 동거를 통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노년기 신체적 제한이 자녀세대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는 인식이 비롯되어 오히려 따로 거주하면서 대신 비대면 접촉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자주 교환하는 세대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원형 세대관계의 경우 연령과 소득수준만이 설명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은 한 단위 증가하거나,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관계 유형에 포함될 승산이 1.05배, 0.76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동거친밀형 세대관

계와는 설명변인의 양상이 상반되게 분석되었다. 연금 비 수급집단과의 설명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대관계에 배우자 유무와 자녀수뿐만 아니라 경제요인 중 순자산과 경제상태만족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 수급 집단은 단지 연령과 소득수준의 감소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어 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은퇴 이후 노년기간의 지속되고 연금 소득이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녀와 지원교환 관계가 단절되거나 낮은 수준의 지원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적 수준의 재분배가 노년기 세대관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노년기 은퇴자의 세대간 지원교환 특성을 통해 세대관계 유형을 분류하고 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2011)도 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역할에서 은퇴한 65세 이상 고령층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대관계 측정변인을 구조적, 기능적, 질적 측면의 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집단을 분석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 비 수급집단에서 동거친밀형(59.5%), 별거연락형(6.8%), 소원형(33.6%) 세대관계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연금 수급 집단에서도 동일한 세대관계 유형을 탐색할 수 있었다. 공적연금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세대관계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연금 수급 집단의 경우 동거친밀형은 23.8%로 세대간 함께 거주하기보다 별거연락형(31.0%), 소원형(45.3%)의 세대관계를 통해 물리적으로 독립된 세대관계를 유지하였다. 조건확률을 항목별로 살펴볼 때, 정서적 지원 교환 수준과 세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연금 수급자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이 지닌 소득 보충적 성격은 자녀에 대한 물리적 의존감을 상쇄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하여 세대간 기능적이며 질적 수준이 높은 상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 중 박경숙(2003)은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을 전통적 이념적 지원형, 호혜적 지원형, 고립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중 전통적 지원관계 유형과 호혜적 지원형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급의 관계가 뚜렷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세대관계 잠재 집단들도 경제적 지원 수급 항목 조건확률이 0.3을 넘지 않았기에 노년기 세대관계의 기능적 측면 중 경제적 지원

은 관계 유형을 특정 하는 차별적 변인으로 역할하지 못하였다.

둘째, 소원형 세대관계 유형의 비율이 각각 33.6%, 45.3%로 나타나 자녀와 기능적 지원을 의미하는 경제적·정서적 지원 교환을 하지 않는 즉, 세대관계가 단절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면에서 자녀와의 연대와 접촉이 미약한 노인의 증가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은퇴이후 생활 만족, 생존기간은 유기적인 세대 간 지원과 접촉에 의해 설명되는 의미 있는 설명변인이기에(정순돌 외, 2010; Erksso, 1999),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사회복지 실천적 차원에서 소원한 세대관계 유형의 노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세대관계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노년기의 관계망을 연구한 Fiori 외(2007)는 사회적 관계 중 가족이 없으며 비지원적인 제한된 관계를 탐색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으며, Dubova 외(2010)에서는 가족이 없는 제한된 관계의 발견을 통해 고령자의 기능적 의존성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탐색된 노년기 세대관계 잠재적 집단으로의 귀속을 설명하는 인구사회, 경제, 건강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주요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 내용과 같다. 첫째, 동거밀착형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금 비수급자 집단의 경우 노년기에 배우자가 있으며,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적으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일수록 해당 세대관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집단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 순자산이 해당 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다시 말하면, 동거밀착형 세대관계에 귀속되기 위해서

는 연금을 수급 받는 노년기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의존욕구가 낮은 특성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전통적 부양관을 갖고 자녀로 부터의 지원을 당연히 여기기보다 자신이 비록 노년세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호혜적 위치의 상황에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전통적인 부양관의 약화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자녀에 대한 의존적 기대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간 이뤄지는 가족자원 특성이 부양관계를 통해서 설명되기 보다는 적어도 앞으로는 정서적으로 한 자원의 활용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 부양지원의 교환이나 경제적 지원은 세대간 호혜적 관계를 붕괴할 수 요인이다. 따라서 물리적 자원지원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오히려 가족자원을 통한 세대간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더 긍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별거연락형 세대관계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연금 비수급자 집단의 설명변인은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녀수가 많고 자신의 소득과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경우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 집단은 오로지 건강 요인으로, 일상생활능력제한(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제한(IADL)이 증가할수록 노년계층이 자녀와 별거상태로 연락을 통한 접촉을 유지하는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통하여 소득의 보충이 이뤄지는 연금 수급 집단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대면 접촉 수준에 제한을 갖게 하는 요인은 기능적 의존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스테르담 노령화 종단연구(Longitudinal Aging Study Amsterdam)를 통해 노년기 신체 및 인지적 기능의 쇠퇴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연구를 통해 살펴본 Aartsen 외(2004)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감퇴가 사회적 관계망의 재조정을 가져온 결과, 친구나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대체로 변화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별거연락형 세대관계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따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노년세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생활능력의 제한이 심각한 경우 별거를 통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중심의 돌봄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대간 과잉지원은 의존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세대관계에서 부모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관계망 내에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세대통합 가족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원형 세대관계의 경우 연금 비수급 집단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의 특성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생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적으며 주관적 경제 상황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집단이 소원형 관계 유형으로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변인으로는 연령의 증가와 소득의 감소로 분석되었다.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소원형 세대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변인은 동거밀착형 세대관계 유형을 설명하는 변인들과 동일하지만 상반된 요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세대관계 유형이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환이론을 노인의 사회적 자원에 최초로 적용하여 조사한 Martin(1971)의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적 자원을 가진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은 관계로부터 소외되거나 의존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근원적 노인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남기민, 2011).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집단에서도 낮은 소득 수준이 제한적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소원한 세대관계에 귀속된 노년층의 공적연금은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과 노동환경의 변화로 은퇴 이후 평균 17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수명연장의 사회가 어떤 노인에게는 축복이겠지만, 적어도 소원한 세대관계에 귀속된 노년층에게는 단지 연명(延命) 정도로 여겨질지 모른다. 따라서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인력의 개발과 일자리의 발굴이 절실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노년층에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주어진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어 보람 있는 여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은 확률표집 방법으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자료이므로 모집단의 모수(parameter)가 반영된 표본의 대표성은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세대관계를 단편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측정변인을 다차원적 분석방법으로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기에 세대관계 분류를 위한 측정항목과 설명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분명한 한계점이다. 세대관계는 생애과정동안 변화되는 것이기에 시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중단연구를 통하여 은퇴 이후 노년 시기별로 세대관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추후에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강인(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

에 관한 연구: 자아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2) 광인숙·홍성희(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 후기집단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3) 김경연·정여진(2006). 건강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4) 김미영·이성우(2009). 노부모-자녀 동거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농촌계획, 15(4), 89-107.

5) 김정석(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6) _____(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1-11.

7) _____(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 1-24.

8) 남기민(2011). 사회적 노화이론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3(1), 33-50.

9) 미래인력연구센터(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10) 박경숙(2000).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11) _____(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61-94.

12) 박태영(200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 학지사.

13)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4)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15) 백주희(2012). 한국 중·노년기 은퇴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1), 273-287.

- 16)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63-191.
- 17) 손병덕·황혜원·전미애(2008). 가족복지론. 서울 : 학지사.
- 18)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3, 12-23.
- 19) 원영희(1996).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8, 77-89.
- 20) 유상미·이민수·전태연·김희철·김재민·현우·황선희(2011).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한 우울증의 임상양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30(2), 553-570.
- 21) 유성희(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짓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22) 유승주·이성우(2007). 도시와 농촌의 노부모-자녀의 동거 결정요인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농촌경제, 30(4), 57-86.
- 23) 유양경(2004).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기. 한국간호학, 34(2), 297-306.
- 24) 유희정(2011). 노년기 자녀와의 관계유형에 관한 중단연구(1):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87-111.
- 25) _____(2011a).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에 관한 중단연구(2): 변화의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 5-39.
- 26) 윤현숙·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27) 이성은(2013).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39-58.
- 28) 정정희(2002).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2(1), 102-127.
- 29)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30) 정병은(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503-518.
- 31)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59-79.
- 32) 정순돌·김성원·문진영(2010).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30(4), 1145-1161.
- 33) 정영미·김주희(2004). 동거유형에 따른 노인의 인지기능, 영양상태, 우울의 비교. 한국간호학, 34(3), 495-503.
- 34) 조지용(2013). 퇴직자의 사회적 관계유형 분류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중단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5)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36) 통계청(2011). 2010년 생명표. 대전 : 통계청.
- 37)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 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38)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39) 한혜경(2002).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생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287-310.
- 40) Aartsen, M., van Tilburg, Smits, H. M. & Kinscher, K.(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physical and cognitive decline on the personal network in old 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50-266.
- 41) Antonucci, T. C.(2001). Social relations: an examination of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edited by Birren, J. E.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427-453.
- 42) Blau, Z.(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Franklin Watts.

- 43) Doubova, S., Perez-Cuevas, Espinosa-Alarcon, P. & Flores-Hernandez, S.(2010). Social network types and functional dependency in older adults in Mexico. *BMC Public Health*, 10, 147-153.
- 44) Dowd, 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 45) Fiori, K. L., Smith, J. & Antonucci, T. C.(2007).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2(6), 322-330.
- 46) Gall, T. L., Evans, D. R. & Howard, J.(1997). The retirement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retirees across tim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3), 110-117.
- 47) Han, G. H., Lee, Y. S. & Kim, S. W.(2008). A typolog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Korea,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주최, International Symposium: Unfolding the Nuances of East Asian families.
- 48) Hooyman, N. R. & Kiyak, H. A.(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Pearson Education.
- 49) Kupperbusch, C., Levenson, R. & Ebling, R.(2003). Predicting husbands' and wives' retirement satisfaction from the emotional qualitie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3), 335-354.
- 50) Lanza, S. T., Collins, L., Lemmon, D. & Schafer, J. L.(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671-694.
- 51) Lemon, B. W., Bengston, V. L. & Peterson, J.(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 52) Litwin, H.(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516-524.
- 53) Litwin, H. & Shiovitz-Ezra, S.(2006). Network type and mortality risk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6(6), 735-743.
- 54) Martin, R.(1971). The concept of power: a critical def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2(3), 240-256.
- 55)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 Knight, E. D.(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and Neglect*, 34, 147-154.
- 56)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57) Ryff, C. D. & Singer, B. H.(2001). *Emotion,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New York: Oxford.
- 58) Shaw, B. A., Krause, N., Liang, J. & Bennett, J.(2007). Tracking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roughout late life. *The Journal of Gerontology*, 62(2), 90-99.
- 59) Sherman, A.(2003). Social rela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with

- status comparis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236-256.
- 60) Silverstein, M. & Bengston, V. L.(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460.
- 61) Szinovacz, M. E. & Davey, A.(2005). Predictor of perceptions of involuntar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5, 36-47.
- 62) Van Tilburg, T.(1998). Losing and gaining in old age: changes in personal network size and social support in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3(6), 313-323.
- 63) Vermunt, J. K. & Magidson, J.(2003). Latent class models for classification. *Computat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41(3), 531-537.
- 64) Williamson, G. M.(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Aging Well*. edited by Snyder, C. R. & Lopez, S. J.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76-686.

- 투 고 일 : 2013년 9월 30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19일